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I

윤 철 경 선임연구위원

요약¹⁾

-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이후의 이행경로별 변화, 이행경로 및 거주지 규모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음.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꿈드림센터에 연계하고 서비스 이용실태 및 참여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청소년 패널 조사와 청소년 패널 및 사례관리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패널 조사를 통해 거주지 규모별, 이행경로별 특성 및 요구, 꿈드림센터 서비스 효과를 파악하였으며 꿈드림센터에 연계한 청소년 패널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청소년 사례관리조사를 통해 꿈드림센터 이용실태를 파악하였음. 또한 면접조사를 활용하여 꿈드림센터 이용동기와 실태, 만족도 등이 이행경로, 거주지, 산·구패널 간에 차이가 있는지, 청소년과 사례관리자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음. 또한 국제심포지엄과 국외출장을 실시하여 선진국의 정책동향을 파악함.
-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후 5년차 거주지 유지율은 80% 수준으로 별로 이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둘째, 대도시 청소년은 검정고시 후 대학진학의 학업특성을 보이는 데 비해 읍면지역 청소년은 학업중단상태로 머무는 경향이 있었고, 동기가 낮고 진로미결정 비율이 높았음. 대도시 청소년은 자기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놀기 위해서 일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강해 진로지도가 필요했음. 읍면지역 청소년은 이에 비해 동기가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경향을 보였음. 셋째, 무업형에서 직업형, 학업형으로의 전환, 직업형에서 무업형으로 전환이 소수 일어남. 무업형과 직업형 청소년의 호환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넷째,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형에 비해 학업형 청소년일수록 꿈드림센터를 이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았고 충동성이 높을수록 센터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았음. 다섯째, 꿈드림센터에서는 학업관련 서비스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었으며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는 요청이 많았지만 제공률이 낮았음.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로는 청소년과 서비스 제공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여섯째,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7~18세 학령기 40만 명, 19~24세 37만 명으로 추정되었음. 무업 학교밖 청소년의 규모는 15~19세가 5만 1천명이었음.

1) 본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년 고유과제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I'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한 것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2015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초중고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규모는 약 32만 명(해당연령의 6.3%)으로 이 중 고등학생 연령이 70%, 중학생 연령이 21%, 초등학생 연령이 9% 수준임. 출국했다가 정규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숫자를 합하면 35만 명이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으로 추정되며, 만 19~24세 학교 밖 청소년은 37만 명(해당 연령의 8.8%, 검정고시로 학력취득자 포함됨) 정도로 추정됨. 2013년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중단자로 구축된 본 연구의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은 이제 80% 이상이 20대로, 2016 학교 밖 청소년 패널조사 결과 본 연구의 패널들은 학업형 50%, 직업형 32%, 무업형 18%로 나타남.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함.
 - 첫 번째, 학교 밖 청소년은 다양한 집단이라는 점, 따라서 그 욕구를 개별적으로 충족시켜 주어야 함. 이들은 교육과 고용과 보호, 정서적·경제적 지원 등 다각적인 필요를 갖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필요함.
 - 두 번째, 학교 밖 청소년은 지역사회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음. 학교 밖 청소년은 가정을 포함하여 각종 학원 및 근로현장, 청소년보호기관과 시설, 대안교육기관, 종교기관, 심지어는 교정기관 등과 간혹 관련을 맺을 수 있음.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 청소년들이 사는 삶의 현장과 지역에서 접근 불가능하고 수혜를 볼 수 없다면 정책은 있되 수혜자는 별로 없는 정책이 될 것임.
- ▶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의 이행경로와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해당 청소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정책적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생태학적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이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2. 연구 결과

1) 학교 밖 청소년 패널조사 기초분석

▶ 학교 밖 청소년의 거주지 이동과 거주지 규모별 특성

- 거주지별 규모 및 이동: 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중 58%는 대도시, 31.1%는 중소도시, 11.6%는 읍면지역에 머물고 있었으며 지난 5년 간 거주지를 옮긴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0% 미만이었음.
- 거주지 규모별 학업적 특성: 학교 밖 청소년 중 54.4%는 학업중단 상태가 아니었고, 이 중 42%는 대학 재학 중 또는 졸업을 한 상태였음. 중단상태에 있는 경우,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한 비율은 60%이며 읍면지역 65.2%, 대도시 58.9%, 중소도시 59.2%로 나타남. 이는 읍면지역 청소년일수록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검정고시로 학력만 취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임.
- 거주지 규모별 직업훈련 및 근로경험 특성: 직업훈련 참여의사는 22.3%에 불과함. 참여의사가 낮은 이유는 '시간이 없거나 안 맞아서', '돈을 벌어야 해서'임. 도시 청소년 중에는 '시간이 없거나 안맞아서'라는 응답이 더 많음. 직업훈련 참여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대도시의 흥미·적성 부합여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취업가능성임. 직업훈련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제, 취업사관학교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 규모별 무업적 특성: 무업의 이유로 대도시 청소년 중에는 '일하고 싶으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가 28.0%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 청소년은 '하고 싶은 게 없어서'가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읍면지역 청소년 중에는 '개인, 또는 집안 사정상'이 29.4%로 가장 많았음.
- 거주지 규모별 진로관련 특성: 향후 진로계획에 있어 미결정자는 25.5%로 전년 대비 5.5%p 증가하였으며 미결정자는 읍면지역이 32.4%로 가장 많았음.
- 제도적으로 도움 받은 경험: 지난 5년간 지역사회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경험은 대도시 53.3%, 중소도시 60.0%, 읍면지역 56.8%였으며 멘토를 만난 주요 기관은 청소년시설, 학원, 상담기관 순으로 나타남. 꿈드림센터 연계 청소년들이 받은 서비스는 진로상담 62.7%, 심리상담 37.3%, 생활정보 제공 35.3% 등으로 나타났으며 읍면지역은 모든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남. 서비스를 지속하지 않는 이유로 대도시는 '시간 또는 도움 되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가 많은 반면 읍면지역은 '센터가 너무 멀어서'가 높게 나타남.
-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한 도움: 대도시 및 중소도시는 경제적 지원을, 읍면지역은 심리 상담과 취업지원을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이행정로의 변화(4~5차년도)

- 이행정로의 변화: 전년도 이행정로를 그대로 유지하는 비율은 학업형 76.7%, 직업형 74.2%, 무업형 49.1%로 무업형이 가장 변화가 크게 나타났음. 직업형과 무업형 간의 상호전환이 활발하게 나타남.
- 이행정로별·연도별 차이: 5차년도에 직업형 청소년의 자격증 및 취직시험 준비가 증가한 반면 무업형 청소년은 이 비율이 현격히 감소함. 무업형 청소년은 전년도에 비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줄었고 휴일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었으며 돈내기/도박 해보기 경험 등이 늘었음. 필요한 도움에 있어서는 무업형은 정보제공, 진로상담에 대한 욕구가 늘었으며 학업형은 심리상담 욕구가 늘고 직업형은 진로상담 욕구가 줄었음.

2) 학교 밖 청소년 패널조사 심층분석 결과: 꿈드림센터 참여효과 분석

▶ 꿈드림센터 이용집단 특성

- 남자일수록, 저연령일수록, 부모님이 안계신 가정보다 양부모·한부모가정일수록, 경제수준을 '하'라고 인식할수록, 대도시·읍면지역일수록 센터 이용이 많았음.

▶ 꿈드림센터 참여 결정변수

- 센터 이용 확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지역사회 유익환경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높았고 직업형 청소년에 비해 학업형 청소년일수록 이용 확률이 낮게 나타남.

▶ 꿈드림센터 서비스 이용효과

- 꿈드림센터 이용은 학업형 청소년의 경우 직업형 청소년에 비해 학업형을 유지할 확률을 높이고 직업형이나 무업형으로 전환될 확률은 낮춤. 무업형 청소년은 직업형 청소년에 비해 무업형으로 남을 확률을 높이고 직업형으로 될 확률은 낮춤.

▶ 꿈드림센터 서비스 이탈 및 계속 이용 관련 변수

- 이탈 청소년은 계속 이용 청소년에 비해 충동성이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동성이 높을수록 서비스 이탈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음.

3) 사례관리 체크리스트 조사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센터 이용실태

▶ 사례관리자 응답을 통해 본 청소년이 요청한 서비스와 제공한 서비스의 비교

- 청소년들이 요청한 상위 10개 서비스 중, 검정고시 준비, 검정고시 준비 방법과 관련한 정보제공, 상담정보 제공, 건강검진, 진학정보, 문화예술 분야의 자기계발 기회 제공, 관계문제에 대한 심리상담, 취업준비 교육, 진로계획 상담 등 8개 서비스는 사례관리자가 제공한 상위 10개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음.
- 요청했지만 상위 10개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는 직업기술 훈련 및 자격증 취득지원이며 요청하지 않았는데 포함된 것은 의료정보 제공, 직업탐색 및 체험 서비스였음.
- 거주지 규모별로 볼 때,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검정고시 준비 방법, 상담비 지원, 검정고시비 지원, 직업탐색 및 체험,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등의 도움을 많이 요청하였음.

▶ 서비스 제공방법과 연계기관 실태

- 총 54개 서비스 중 50% 이상 자체 제공하는 서비스는 36개였으며 50% 이상 외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10개에 불과해 서비스의 외부 연계가 취약했음. 외부 연계 기관도 10회 이상 연계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건소, 병원 및 약국, 취업성공패키지, 민간 사업장 등 10개 미만으로 연계기관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었음.

▶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와 그 이유

- 청소년들이 요청하였으나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로는 직업기술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취업에 유용한 자격증 정보 제공, 진로 계획 상담 등 취업 관련 요청이 많았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로 가장 많은 것은 '청소년과 서비스 제공시간이 맞지 않아서'였음.

4) 학교 밖 청소년 및 사례관리자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서비스 참여 결과에 대한 집단 간 차이 심층 분석

▶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 결과

- 신규 패널간 비교: 신규 패널은 친구나 선생님을 통해 꿈드림센터를 알게 되고 검정고시, 취업,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고 센터에 온 반면 기존 패널은 선생님 외 가족, 홍보, 다른 기관 및 본 연구 설문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센터를 알게 되고 취업, 경제적 지원, 상담에 대한 욕구가 있음. 센터에서 권유받은 서비스의 경우 기존 패널은 자기 계발, 직업훈련, 취업지원, 검정고시 등 다양한 권유를 받은 반면 신규 패널은 건강검진이나 인턴활동을 권유받음. 사례관리자와의 만남은 신규 패널이 많았음.
- 이행경로 간 비교: 기존 패널에서 학업형 청소년은 센터가 학업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검정고시 프로그램이 전문직일 것을 요청하였음. 또한 필요한 도움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 이용의사가 있었고 서비스 제공받은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음. 직업형 청소년은 경제적 지원을 원했으며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것에 비해 원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시간이 없는데 센터와의 거리가 멀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무업형 청소년은 센터를 잘 모르고 기대 없이 왔다가 실무자의 권유로 내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친밀감이 쌓여 발전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음.
- 꿈드림센터 계속 이용자와 이용 완료자, 이용 중단자 간 비교: 세 집단 간 센터 이용 목적과 서비스 평가에 차이가 있음. 특정 시점 종료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청소년은 서비스 종료 후 센터 이용을 종료함. 센터 시설의 자유로운 이용과 상담자와의 관계 등의 이유로 참여한 경우 계속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 센터 이용 중단의 요인은 서비스에 대한 불만, 아르바이트로 인한 시간 부족, 상담자 교체 등이었음.

▶ 사례관리자 면접조사 결과

- 학교 밖 청소년의 유입경로와 유입경로별 특성: 교육청 리스트를 통해 발굴한 경우 적극성과 적응력이 낮으며 보호관찰소나 경찰 연계의 경우 비행성향과 부적응의 특성이 있음. 소개 또는 자발적으로 방문한 경우 동기와 목표의식이 있음.
- 꿈드림센터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영향요인: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상담자의 역량, 고용안정성, 직무 만족도 등 상담자 요인이며 다음은 독립적인 공간과 센터장의 사업 추진 방향 등 기관 요인이었고 강사 풀 등 지역사회 인프라 요인임.
- 업무상 애로사항: '출석 관리 및 중도 탈락자 발생', '업무 부담', '조직이 주는 스트레스' 등이 거론됨.
- 개선요구사항: 센터 간 인건비 수준의 격차, 인력 대비 과중한 사업비 등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봄.
- 사례관리자와 학교 밖 청소년 간의 인식격차: 검정고시 서비스에 대해 사례관리자는 강사의 자질과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반면 청소년은 만족도가 낮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사례관리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인턴십 운영 등을 제공했다고 평가하는 반면 청소년은 이에 대한 의미 있는 응답이 없었음.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사례관리자에 비해 청소년은 의미 있게 평가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사례관리자에 비해 청소년이 서비스 질을 낮게 평가함.

5)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국내외 정책현황 비교 및 시사점

- ▶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2013년부터 최근 3개년 간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감소세를 보임. 7~18세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은 약 32만 명으로 추정됨. 19~24세 청소년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청소년은 최소 37만 명(8.8%)으로 추정됨.
- ▶ **무업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2016년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무업 학교 밖 청소년은 총 5만 1천명(15~19세: 2만 3천명, 20~24세: 2만 8천명)으로 추정되며 전체 무업청소년의 규모는 2014년 이후 최근 3년 간 비교적 급격히 상승함(15~19세 2.8%에서 3.9%, 20~24세 12.2%에서 13.4%). 또한 고졸미만 무업청소년의 경우 비구직 무업청소년이 많은 특징이 있음(15~19세의 91%, 20~24세의 89%).
- ▶ **무업청소년 비율의 국제비교:** 한국의 무업청소년 비율은 OECD 36개국 중 15~19세에서 24위(7.7%), 20~24세에서 30위(22.2%), 25~29세에서 28위(24.5%)임. OECD 평균(각각 27.1%, 20.5%, 18.2%) 보다 무업 청소년 비율이 높은 편임.

▶ 국내외 정책현황 분석 및 시사점

- 무업 학교 밖 청소년에 초점을 둔 정책개발이 필요함.
- 청소년들이 학교에 있던, 학교를 떠나던 만 18세까지는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는 청소년 보장정책이 필요함.
- 학교를 그만 두기 전 청소년사회보장체제의 일환으로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소재 기업, 대학, 학교 등 지역사회 파트너십, 고용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여부가 무업 청소년의 사회 재편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임.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청소년의 무업화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기반정책과 이미 학교를 나온 무업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기반정책을 함께 구축해야 함.
- 원거리,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 무업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업청소년의 상태, 취업능력 등에 대한 상세한 평가와 분류가 필요함.

3. 정책제언

영역 1

무업 청소년 지원대책 강화

과제 1. 청소년 사회보장제 실시

- 학령기 청소년들이 학교에 있던, 학교를 떠나던 만 18세까지는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사회보장제 도입이 필요함.
- 유럽국가에서는 이러한 청소년보장정책을 확대하고 있음.

과제 2. 무업청소년이라는 청소년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 교육부,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유인되지 않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무는 청소년들, 무업청소년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스코틀랜드 Skills Development Scotland의 16+ Data Hub처럼 무업청소년을 찾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과제 3. 무업청소년의 분류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

- 무업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상태와 취업능력을 고려한 상세한 분류와 평가를 통해 이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함.

과제 4. 무업청소년을 위한 동기 부여 및 진로직업 훈련 프로그램 강화

- 지난 5년간 여전히 무업형인 청소년들은 지난 1년간 사회적 위축 수준이 더 높아졌고, 무업형과 직업형은 서로 호환되는 추세임.
- 꿈드림센터는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나기 힘든 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이러한 기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영역 2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대책 강화

과제 5. 고졸이하 청소년층에 초점을 둔 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 취(창)업 지원에 이르는 통합적 프로그램 개발·운영

- 고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보편적 학습은 교육부가, 직업훈련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여성가족부는 취약 및 위기청소년의 학습과 일, 생활기술과 복지지원에 담는 통합적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과제 6.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직업 상담 체계 구축: 한국고용정보원과 연계한 실무자 연수 및 진로직업 전문가 확충

- 학교 밖 청소년은 진로직업 상담을 필요로 하지만 꿈드림센터 서비스는 학업지원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고용정보원과 연계하여 실무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상담 집중연수를 통해 이에 대한 대응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음.

과제 7. 일·학습병행제 TYPE II 개발

- 취약·위기청소년들이 일하면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 II의 개발이 필요함. 즉 목공, 도예, 염색, 디자인 등 지역사회 다양한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한 작업장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직업체험, 도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과제 8. 취약·위기 청소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별도 운영

- 취약·위기 청소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의 사업으로 분류하고 성과지표도 차별화하여 청소년 대상 취업성공 패키지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영역 3**은둔 무업형 청소년 지원 대책****과제 9. 은둔 무업형 학교 밖 청소년 규모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 은둔 무업형 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함.

과제 10. 은둔 무업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체계 구축

- 읍면동 사회복지사, 학교, 꿈드림센터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웃리치를 통해 가정에 은둔해 있는 청소년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과제 11. 은둔 무업형 청소년 지원에 대한 홍보 및 부모 세미나 운영

- 부모의 의뢰가 있는 경우 가정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 상담을 통해 부모 치료와 부모들의 자조모임이 선행되어야 함.

과제 12. 가정방문 상담체계 구축 및 치료형 캠프

- 가정방문상담을 위한 가정방문 상담사 양성과정이 필요하며, 꿈드림센터 상담사, 청소년 동반자, 방문상담자가 방문상담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과제 13. 무업형 청소년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자립생활관 설치

-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은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공동생활 기숙사, 자립생활관 등과 더불어 기본생활습관 개선, 진로컨설팅, 직장체험 등 이들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지원, 단계적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야 함.

영역 4**지역정책 강화****과제 14. 청소년 데이터 허브 시범 운영**

- 스코틀랜드의 데이터허브는 학교, 기업, 훈련기관 등을 연계한 데이터 공유 시스템으로 무업청소년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임. 지방교육청과 자치단체 협약을 통한 사업 실시가 필요함.

과제 15. 지자체가 중심이 된 촘촘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체계 강화

- 도움이 필요한 지역 청소년을 발굴하는 것은 지자체가 책임을 갖고 담당해야 함.

- 지역 아웃리치 전문단체를 양성하고 지원하며,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아웃리치 단체의 육성과 지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과제 16.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 투자 필요

- 읍면지역 청소년은 서비스 이용률이 취약하고, 동기와 프로그램 참여의지도 낮고 근로종단 경험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일하는 비율도 낮음. 진로미결정 비율도 높음.
- 읍면지역 청소년의 동기를 개발하는 지역단위 사업과 청소년 수당을 연계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과제 17. 지역 학교밖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정책 강화

- 지역에 따라 자원도, 청소년의 특성과 정서도 다르기 때문에 지역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접근방법이 필요함.

영역 5

전달체계: 꿈드림센터 강화

과제 18. 꿈드림센터와 상담복지센터의 통합 또는 분리·독립 추진

- 꿈드림센터 실무자는 동일 조직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문제로 조직 스트레스가 심함.
- 조직 통합을 통한 평등한 대우,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조직 이탈을 막고 전문성을 축적할 필요가 있음.

과제 19. 꿈드림센터의 업무 설계

- 꿈드림센터가 담당해야 할 우선적인 업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적극적인 발굴과 사례관리이며 그 다음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협력체계 구축임.

과제 2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실무자 직무분석, 업무 체계 및 임금체계의 개선

- 꿈드림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일부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정책환경 및 지역사회 청소년의 필요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직무분석, 기능 조정, 업무체계 및 임금체계의 개선 등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과제 21. 오후와 야간, 휴일 근무체계를 갖춘 꿈드림센터 시범 운영

- 청소년들의 센터 이용을 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시간이 맞지 않아서'이므로 청소년들이 시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꿈드림센터의 평일 야간 및 휴일 개방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과제 22. 꿈드림센터 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운영

- 꿈드림센터의 진로직업 상담, 취업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실무자에 대한 집중연수가 필요함.